

#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연기

### 정부에 kWh당 3원 인상안 제출...반영 땀 4인 가구 3천원 추가 부담 운 당선인 '동결 공약' 주목...광주·전남 올 1월 전력사용량 역대 최고

한국전력이 21일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홈페이지 공지서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전날 갑자기 미뤄진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한다. 한전은 지난 16일 조정단가 결정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에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1분기 요금

도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인상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됐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에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고도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은 앞서 예고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는 4월과 10월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다음달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다음달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된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 인상되면 다음달부터 kWh당 9.9원이 오르게 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다음달부터 추가적으로 내는 요

금은 3500원 안팎이 되는 것이다. 발전 원가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최근 원료비가 급등함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적자인 5조 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연료비가 크게 늘었지만 전기요금(연료비 조정요금)을 4분기 한차례만 인상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가가 계속 올라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1분기 적자만 지난해 연간 전체 적자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는 증권업계 분석도 나왔다. 이날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연기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0% 내린 2만2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올해 1월 광주·전남 전력판매량은 3914GWh(기가와트시)로 1월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7.0%(258GWh) 증가한 규모이며, 10년 전인 2012년 1월보다 21.4%(691GWh) 많아진 양이다. 지난 한 해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은 4만2460GWh로,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가 반등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역 중기 인력난·청년 구직난 해결 나선다

### 광산업진흥회·광주교육청 협약

한국광산업진흥회 21일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 필요성을 공감, 광주지역 내 300여개 광융합 기업 및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에게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취업 연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선을 목적으로 '제3회 우리지역기업 바로알기' 공모전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 산업분야의 기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

이며, 구인·구직 채용연계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실질적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예견한다. 진흥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광주시 북구 등과 함께 위기관리자 이전지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지역 우수기업과 위기관리자, 청년층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광융합 산업을 비롯한 광주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매칭의 장을 마련해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고도부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원예농산물 4500억원 판매 목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무안군 삼합읍 지역본부에서 '상반기 연합판매사업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원예농산물 연합판매사업 목표 매출액 4500억원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농협 소속 농산물판매전담팀 통합 마케팅조직 17개소는 지난해 연간 취급액 4300억원을 넘겼다. <전남농협 제공>

## 상위 1% 근로소득자, 광주 7대 특·광역시 꼴찌

### 수도권 75%...지역 불균형 심각 광주 2600명·전남 2796명

광주에서 전국 상위 1% 안에 드는 근로소득자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과 수도권 사이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울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 49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4.5%에 해당하는 14만5322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만671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5만2651명(27.0%), 부산 8447명(4.3%), 경남 6340명(3.3%)이 뒤를 이었다. 광주 1% 근로소득자는 2600명, 전남은 2796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1.4%이었다. 광주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신도시 세종(516명)을 제외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



## 농협은행 전남본부, 지역인재전형 신입행원 22명 채용

### 17개 시·도 450명 합격

NH농협은행은 이달 4일 17개 시·도 지역단위 전형을 통해 합격한 450명을 신입 행원으로 채용했다. 신입 행원들은 일선 영업점에 배치된 뒤 선배 직원과 일대일 직무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이창기 전남영업본부장은 "향후에도 농협은행은 전남에 연고를 둔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해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86.05 (-20.97)
- 코스닥: 918.40 (-4.56)
- 금리 (국고채 3년): 2.268 (+0.037)
- 환율 (USD): 1216.30 (+8.70)

### 부동산 매매

<b>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b>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b>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b> 11,000㎡ 현재 갈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b>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b>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b>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b> 약 7,400㎡, 전제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b>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b>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b>해남읍 사찰, 임야</b> 전 36,000㎡ 건물6동 남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b>두암동 대지</b>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b>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b>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적벽돌외벽 스텔라블루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곡,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너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울당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함 매 ㎡ 6천원  
(2) 담양읍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출몰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 대지매매

##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 85억

010-6432-5070

###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주주서면결의)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년 5월 22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22일  
주식회사 청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49(고동동)  
청산인 임승열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광로 106, 111동 1302호 (우산동, 세계수영선수촌중흥에스케이스트림빌)

---

### 산행안내

3월27일(일)  
▲광주시산악회 3월27일(일) 총 북단양 "제비봉" 구담봉 "육순봉"출령 다리&노림보강물길 "잔도트레킹"스 카이워크산행 \*연주제육공05:00, 동아병원05:05, 롯데백점05:10, 광주역05:15, 문예후문05:25, 비엔주차장 05:30 \*다음카페 광주시산악회 ☎ 010 7794 6920

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 先州日報

#### 지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장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선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윤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천단 973-2900
• 유산동 955-0451
• 광산 944-0444